

■ 특특뉴스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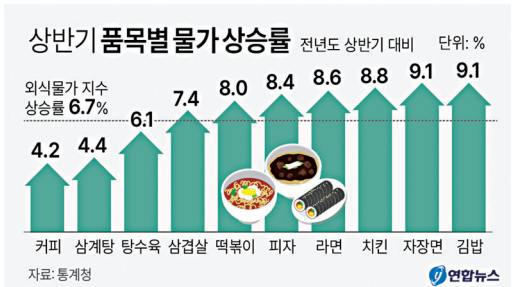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올린다.

주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연합뉴스

■ 그래픽 경제



상반기 외식물가 전년비 6.7% ↑

올해 상반기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소비자 체감이 큰 외식 물가가 특히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외식물가 지수는 전년 누계 대비 6.7% 상승했다.

전년 누계 대비 변동률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물가 수준 평균을 전년도 같은 기간 물가 수준 평균치와 비교한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인 삼겹살 물가가 7.4% 상승했으며, 외식으로 사 먹는 쇠고기(8.5%)와 돼지고기(7.9%) 가격도 함께 올랐다. 자장면 가격은 상반기에만 9.1% 치솟았고, 짬뽕은 8.2%, 당수육은 6.1% 각각 올랐다. /연합뉴스

생산전량 자급·소비 감소 영향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 지속

소비 촉진·타작물 재배 등 노력

전례 없이 치솟는 밥상물가 속 한국인의 주식인 쌀 값은 끝없이 추락하면서 소비자와 농민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밥상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계 부담이 늘었으나 주요 소비식품인 쌀 값은 오르지 않아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물가 상승 및 소득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등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며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광주지역 쌀(20kg)은 평균 도매 가격은 4만3,700원으로 나타났다. 5만7,000원에 거래되던 전년도동월 대비 20% 이상 떨어진 가격이다.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6.3%, 7.1% 오른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 5월 80kg당 17만 9,404원으로 지난해 10월 22만7,212원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는 2018년도 이후 처음으로 18만 원 선이 무너진 것으로, 지난 2월과 5월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쌀 과잉생산 물량 27만 톤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3차 시장격리 발표에도 쌀값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다.



18일 오전 광주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 곡식코너에서 소비자들이 쌀을 구매하기 위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례 없는 쌀 값 하락은 전세계적인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출 차질 등으로 작년 말부터 밥상 물가가 연일 오르는 상황에서 유독 눈에 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쌀 가격 약세 요인으로 과잉생산 및 소비 부진을 주요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작황에 문제가 없어 쌀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이유는 없으나, 국내 쌀 소비가 감소하며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고가 많은 업체들이 판매를 위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지난해 56.9kg까지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최저치다.

특히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96만 톤으로, 월별 쌀 판매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전까지 재고가 남아 올해 신곡 가격에도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쌀을 대부분 전량 자급,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거의 전무해 코로나19나 전쟁 등 외부 요인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쌀 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농민들의 이중고를 더는 동시에 시민들의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쌀 수급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과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쌀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등에서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고품질 쌀 산업 육성 종합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또한 지난달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지는 줄이고 밀,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오는 2027년까지 일반 벼 재배면적 4만2,000ha를 분질미 재배지로 변경, 밀가루 수요를 분질미로 대체하는 등 쌀 공급 과잉 해소와 더불어 밀의 수입 의존도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홍승현 기자

광주상의, 경영·고용 위기대응협 1차 회의

경제주체간 긴밀한 공조 협의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2022년도 제1차 지역기업 경영·고용 위기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시와 광주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광주일자리창출 혁신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저탄소·디지털 경제전환과 원자재가 및 금리 상승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과 산단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광주고용노동청, 하남·평동·소촌·송암·본촌 산업단지 협의회 및 기업체 관계자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광주테크노파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노무사, 기업 경영 및 기술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인력유출과 신규채용에 대한 어려움,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경기둔화 및 자동차 생산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애로를 호소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지원,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확대 지

원 등이 절실함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산단 활성화화를 위한 입주 제한업종 규제완화, 물류부지 확대, 가로수 정비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광주고용노동청은 고용유지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하반기 보증확대 지원제도 및 정책자금 지원제도 등의 기업지원 제도들도 공유했다. /이연수 기자

글로벌 일류기업

건해건설(주)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무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준공
강원 동해시, 광주 용봉동, 서울 공릉동 등 아파트 644세대

진행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피스텔 240호
영광 군서면 마을리 연립주택 212세대

예정
대전시 동구 낭월동 희담재 아파트 258세대

대표이사 **이 현 각**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6
TEL. 062) 574-8501

기쁨을 주는 아파트

www.gunhae.co.kr

희담재
HEDAMJAE